

# 다시 찾아온 독서의 계절

이태동

서강대 영문과 교수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등화가친의 계절인 가을이 다시금 우리 곁에 찾아왔다.

책을 읽고 인생과 자연에 대한 사색으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특별한 계절이 어디 달리 있겠는가마는, 가을은 분명히 책 읽기에 가장 좋은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을 두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가보다.

정말이지, 창밖 뜰라에 교묘한 달빛이 부서지는 소슬한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를 벗삼아 책을 읽으면서, 우주의 신비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것보다 더욱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으랴. 깊어가는 가을밤 늦게까지 앉아 책이라도 한편 읽다가 자리에 누우면, 마음은 크나큰 부를 얻었을 때보다 호뭇하고 만족스러워서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새삼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가을이 오면 곧 겨울이 찾아와서 또 한해가 지나간다는 절박감과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텅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고 쇠락해가는 의식을 일깨워야만 한다.

다소 추상적인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이 이세상에 태어나서 이룩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무엇보다 인간을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문자로 시작된 책의 문화도 결국 인간조건을 보다 나은 상태로 진화시키려는 노력의 결실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서책은 인간의 참된 진실과 지혜, 그리고 문화적인 유산 및 상상력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의 문명과 보다 풍요로운 정신적인 삶을 확대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서는 그것이 위협을 받고 있는 영상매체와는 달리 인간의 두뇌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상력을 확대시켜 훌륭한 인격 형성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준다.

그래서 책읽기는 인간에게 '감정교육'을 시키는 데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람이 책을 읽으면, 얼굴색이 밝게 변한다는 말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인간이 가지는 균형된 시각과 우아하고 품위있는 취미는 독서를 통해서 터득한 지성을 통해 교육받은 감정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책읽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이 될 수 없겠다. 사실, 문화 선진국에 뒤떨어진 우리의 시민의식은 물론, 낙후된 과학·기술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책을 읽는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책은 지식의 샘터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불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의 저자와 출판업자는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문화부가 도서출판계와 힘을 합해 도서증권을 개발하고, 오지의 마을에까지 도서관 문화를 펼치려는 의지는 그곳에 우리의 국운과 문화민족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몰신주의자들은 모르겠지만, 화이트 헤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생활의 여러 조건에 있어서는...교육받은 지성에 가치를 두지 않는 민족은 멸망할 운명에 있다."

그러나 또 한번의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금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유라는 이름아래 악서가 양서를 구축하는 모순된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책의 홍수속에서 어떤 것이 양서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정직한 길잡이를 마련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책의 포장은 같지만 양서가 아닌 악서는 민족정서를 교육시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그것을 다시금 원시적인 상태로 퇴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혹시 어떤 책이 '베스트 셀러'라는 이름아래 잘못 선택되어져, 독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량한 '베스트 셀러'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라는 구실로만 계속 존재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늘 찾아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국화꽃 향기와 더불어 찾아온 가을이 뜻없는 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뉴스 2 무실적 출판사 60%·외

시론 4 '포스트코뮤니즘'의 시대는 오는가 - 김학준  
소련시대 계기로 본 공산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리뷰 6 책으로 엮어 본 소련 총람  
소련관련도서 분야별 주요 목록해제

초점 10 궁금한 뒷얘기들 요즘 이렇게 진행된다  
일산출판단지·대형서점 개점설·ISBN·도서상품권

서평 12 이기상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 박순영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 정진홍

13 박경호 「지방의회론」 - 김보연

박순달 외 「뇌의 인공적 확장...」 - 박광석

14 정효구 「광야의 시학」 - 정현기

손영목 「장항선에서」 - 홍기삼

저자인터뷰 15 인류는 두번째의 공룡이 되려는가  
「홀로세의 공룡」 펄먼 최형선씨

특별기고 16 또한번의 새로운, 혹은 마지막 시작 - 박이문  
반평생 나그네길 끝에 돌아와 부르는 귀거래사

출판화제 18 명상서적은 출판계의 구원파인가 - 이권우

20 도시문제 다룬 책 점차 는다

표지 21 월인천강지곡

이 책 그 사람 22 「새들은 왜 녹색별...」 엮은 이경호씨

「장미정원」 번역한 박길부씨

23 「곤충의 사회행동」 펄먼 추종길교수

「나의 경제학」 펄먼 유인호교수

에세이 24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고향의 추석 달 - 김태준  
詩가 있는 한가위 풍경

화제의 책 25 남평 조씨의 필사본 한글일기 「丙子日記」

해외출판 26 성장 잠재력 엄청난 스페인출판·외 - 이희재

28 독자서평

30 이 달의 청소년도서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 안내